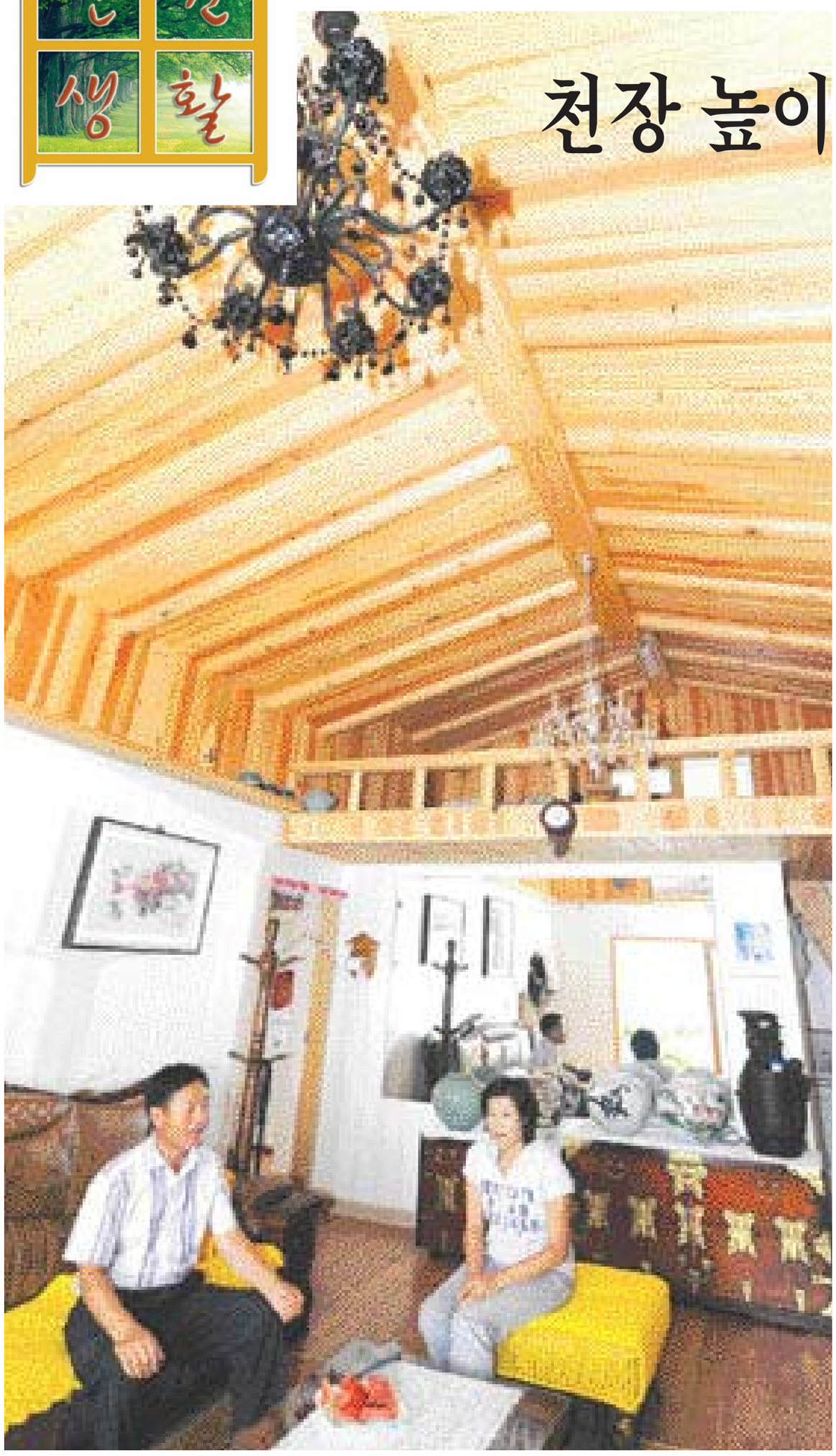
천장 높이니 한여름 무더위도 거뜬

■ 해남 삼산면 정효식·조명옥 부부 전원주택



해남군 삼산면 신흥마을에서 전원생활중인 정효식·조명옥씨 부부가 거실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정효식·조명옥씨 부부가 마당 한쪽에서 키우고 있는 토종닭에게 모이를 주고 있다.

해남읍에서 승용차로 20분 정도를 가면 삼산면 신흥마을에 자리잡은 정효식(55)·조명옥(50·여)씨 부부의 전원주택을 만날 수 있다.

마당으로 들어서면 맨드라미 등 아기자기한 꽃들이 가득 들어찬 정원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주변 텃밭에선 고추, 파, 옥수수, 들깨, 팥, 녹두, 고구마 등 다양한 농작물도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다.

31사단 해남대대에서 원사로 근무하던 정씨는 지난 2006년 2월 다리 부상으로 예편한 뒤 제 2의 고향인 해남에 둥지를 틀었다.

무안이 고향인 정씨는 지난 75년 의정부 26사단에서 부사관으로 군 생활을 시작했으며 해남과 인연을 맺은 것은 지난 84년 31사단 해남대대로 근무를 '명' 받으면서 부터다.

2006년 軍 예편 후 땅 매입 해남에 둥지 틀어

앞엔 들넓은 평야 뒤엔 두륜산 … 한폭 수채화

거실 귀퉁이에 다락방 만들어 독서 공간 활용

그러나 정씨는 87년 훈련 도중 왼쪽 다리의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은 뒤 각종 훈련으로 부상 부위가 악화됐고, 결국 지난 2006년 6급 판정을 받고 군 생활을 마감했다. 정씨가 예편한 뒤 강원도가 고향인 정씨의 아내는 해남을 떠나 도시에서 살 것을 원했다.

그러나 정씨의 마음은 이미 해남에 머물러 있었다. 정씨는 2000년부터 2년여에 걸쳐 해남의 곳곳을 누빈 끝에 새 집을 지을 땅을 구입해 놓은 상태였다.

정씨는 땅을 구입할 당시 자신이 꿈꿔온 장소가 쉽게 눈에 띄지 않아 애를 먹기도 했다. 그러다 2002년 어느날 우연히 방문한 신흥마을에서 고향같은 포근함을 느꼈다. 신흥마을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한폭의 수채화 자체였기 때문이다.

드넓은 농경지가 한 눈에 들어오고, 그 뒤로는 두륜산 자락에 위치한 대흥사가 자리잡고 있다. 두륜산 케이블카가 오르내리는 것을 보는 것도 작은 즐거움 중 하나다. 특히 밤이면 대흥사에서 새나오는 불빛과 밤 하늘의 별빛이 어우러져 환상적인 야경을 연출하기도 한다.

신흥마을을 안식처로 결정한 정씨는 주저없이 평당 5만원에 597평을 구입했고, 2006년 가을에 공사를 시작해 2007년 봄에 입주했다.

집은 평당 250만원의 건축비를 들여 건평 28평에 방 3개와 거실 1개, 욕실 1개, 주방 1개를 마련했다. 아파트 생활에 답답함을 느낀 정씨는 바닥과 천장의 높이를 3m80cm로 높게 했고, 거실 귀퉁이를 이용해 2층 다락방을 만들었다. 이곳은 정씨만의 독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1년여를 지내다보니 한 가지 아쉬움이 남는다고 한다.

전국을 돌며 군생활을 한 탓에 외지에서 사귄 친구들이 많은 데, 그들이 방문할 경우 1개 밖에 없는 욕실이 불편하다는 게 정씨의 불만이다. 정씨는 그래서 마당 한 켠에 화장실과 샤워시설을 갖춘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씨는 또 자신을 친자식처럼 품에 안아준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야심찬 프로젝트도 준비중이다.

바로 집 한켠에 찜질방을 만드는 것이다. 이곳에서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은 묵은 땀을 빼낼 생각이다.

정씨는 "내 인생에서 가장 잘 선택한 일을 꼽는다면 군인으로 국가를 위해 봉사한 것이고, 두번째가 이곳에서 전원생활을 시작한 것"이라면서 "부모님같은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나만의 행복한 전원생활을 꾸려나갈 계획이다"고 활짝 웃었다.

/해남=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젊은층 전원생활 노하우

정효식씨 부부는 전원생활자 중에서 젊은층에 속한다. 전원생활을 시작한 2007년 당시 정씨는 54세, 아내는 49세에 불과했다.

농사를 짓지 않는 정씨 부부가 둥지를 튼 신흥마을은 대부분 70대 노인들이 농사를 짓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다. 자칫 마을 주민들과 생활패턴의 차이 때문에 마찰을 빚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정씨 부부가 지난 1년간 생활하면서 느낀 전원생활 노하우를 들어봤다.

◇집짓기 전부터 마을 사람들과 친해져라.

정씨는 토지 구입 후 3년동안 신흥마을의 각종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했다. 남은 여생을 보낼 마을 주민들과의 돈독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였다. 특히 마을이장 등 젊은 층에 해당하는 사람들과 친분을 쌓았다. 이후 집을 짓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하수 개발 등 각종 난관들을 마을 주민의 도움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었다. 요즘은 마을 주민들이 시기별로 텃밭에 심을 씨앗을 가져다 주는가 하면 농사 짓는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등 한가족처럼 지내고 있다.

◇주민들의 생활패턴에 맞춰라

농촌 주민들은 새벽부터 오후 늦게까지 각종 영농작업에 매달린다. 여유로운 전원생활을 꿈꾸고 전입해 온 일부 사람들의 경우 아침과 낮시간에 부부동반으로 산책이나 운동 등을 하는 경우가 많은 데 주의하는 게 좋다. 마을 주민들의 눈엔 젊은 사람들이 게으름을 피우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대인관계 감안해 방과 욕실 규모 정하라.

주말이면 전원생활에 관심을 갖는 친구 등 지인들의 방문이 잦기 마련이다. 집 설계 시 자신의 평소 대인관계 등을 잘 계산해 방과 욕실의 규모를 정하는 게 좋다.